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이재민을 돕자

김 윤 호 주필·행정학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터키) 남부와 시리아 북부 내륙 지역을 강타한 진도 7.8의 강진으로 무너지고 부서지고 죽고 오열하는 소식은 전 세계를 울리고 있다. 2월 18일 현재, 튀르키예 국영 아나톨루 통신, 튀르키예 재난 관리청(AFAD),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 OCHA) 등은 사망자 46,440명(튀르키예 4만640명, 시리아 최소 5800명), 부상자 118,109명, 이재민(罹災民) 1,425,720명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사망자, 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튀르키예 당국은 내일(2월 19일) 생존자 수색을 중단하고 산 자(생존자, 이재민)를 구호하겠다고 한다.

현재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도로, 병원 등 기반시설이 무너져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기와 수도가 파괴되고 식수와 식량도 부족하여 생존의 기본적인 조건인 굶주림과 영하의 강추위에 노출되어 있다. 7.5도의 2차 지진과 최소 5700회 이상 계속되는 여진(餘震)의 공포와 열악한 환경으로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리아 정부는 반군이 점령한 지역으로 식량, 의료품 등 인도적인 구호 물품 반입도 차단해서 시리아 이재민들의 피해와 참상은 극한 상황이다. 국제 여론의 압력에 밀려서 구호물품 반입을 허용했으나 도로 등 기간시설이 무너져서 전달할 수가 없어서 구호물품도 떨어진 참담한 현실이다. 2011년부터 12년간 계속되는 내전에 지진까지 덮친 것이다. 비극의 땅에 또 다시 비극이 덮쳤다.

며칠 전에는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점령지역에 지진 이후에 처음으로 포격을 가했다. 눈 뜨고는 차마 볼 수 없는 참상 속에서도 전쟁(포격)을 한다는 것은 불사(不殺)의 인간의 비극이다. 우크라이나전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두고 서로 자기들 말이 옳다고 하면서 2022년 2월 24일 시작한 전쟁을 전 국토가 황폐화되고 수십만명의 사상자를 내기도 만 1년이 다 되는데도 계속 싸우겠다고 우기고 있다.

생존 골든 타임이 72시간(3일)이라고 하는데,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믿을 수 없는 기적적인 생환 소식이 전해져서 세계인을 감동시키고 있다. 시리아 알레포지역에서 무너진 건물 잔해, 돌맹이와 흙먼지 속에서 죽은 엄마와 뱃줄로 연결된채 울면서 구조된 신생아는 '아야(Aya, 기적)'라는 이름을 지어 불렀다.

아이의 부모와 4형제 모두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기적적인 생환이 있을

때마다 구조대원들과 사람들은 '신은 위대하다'고 모두 소리쳤다. 신비로운 생명의 위대한 승리다.

시리아 북부 마을 하람에서 36시간 만에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린 채 동생 일라프(5세)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팔로 감싸 안고 구조를 기다리던 7세 소녀 마리암은 구조대원에게 "우리를 꺼내주면 당신의 하인이 되겠다"며 간절히 호소했다.

튀르키예 국영 아나톨루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튀르키예 대지진 최대 피해 지역인 튀르키예 남부 하타이주 안타키아 건물 잔해에서 12세 소년 오스만 할레비예가 사고 260시간(10일 20시간) 만에 구출됐다. 17일(현지시간) 하타이주 데프네구의 한 무너진 아파트 건물 잔해 속에서 45세 남성 하칸 야시놀루가 대지진 발생 278시간(11일) 만에 구조되고, 18일 296시간(13일)만에 일가족 3명이 극적으로 구출됐다.

튀르키예(터키)는 우리 한민족과 같은 우랄 알타이족이며 6세기 중엽부터 8세기 중엽까지 몽골고원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돌궐(突厥)이며 고구려의 기층(基層)민중으로 우리의 형제국이다. 대한민국을 코리아(고구려, 고려)라고 부르듯이 '투르크'는 돌궐의 다른 발음이다.

터키가 6·25전쟁 때 아시아에서는 제일 먼저 파병하고, 미국, 영국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병력 1만4936명을 파병하여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721명 전사에 2,147명이 부상했다. 파병이 늦어지자, 당시 터키의 고등학생들이 왜 형제의 나라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느냐면서 데모를 벌였다고 한다.

전쟁도 슬프고 불행한 일이지만, 대지진으로 하루 아침에 집을 잃고 부모형제를 잃고 상처를 입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식량, 식수 등 먹을 것도 없어서 추운 텐드 안에서 영하의 추위와 굶주림에 울고 있는 형제 나라 터키의 이재민들에게 우리는 따뜻한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간절한 기도를 보내야 한다.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인간애와 인류애를 발휘해야 한다.

심각한 인도적 위기, 비탄의 눈물에 젖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와 KBS가 2023. 2. 20(월). 오후 7시 30분에 특별 모금방송을 한다고 하니 국민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한다. 나는 불의에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조그마한 마음을 보냈

칼럼

기고

공공청사는 지역민의 열린 소통공간이 되어야 한다

김형채 장흥군재무과장



우리나라의 공공청사는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조선총독부를 포함한 각 지역의 도·군청사로 시작했다. 대부분의 청사가 1960~1980년도 사이에 건립이 되어 지금까지 청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더불어 공공청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단순히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공간을 넘어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적 활동을 수용하며 다양한 사회적 접촉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 공간의 개념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현청사들은 변화된 공공청사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어 전국적으로 신청사 건립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보통신 등 급속히 발전한 디지털 시대는 이같은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장흥군도 마찬가지로 청사 신축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1977년에 지어진 현재의 청사는 안전성 문제를 안고 있다. 업무공간이 협소하고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점 등 현재 요구되는 청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

장흥군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2016년부터 매년 50억 이상 기금을 모으고 있다. 지난 2월 8일에는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위촉식과 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 청사 신축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신청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지역주민을 위한 민원처리 공간과 휴식·문화적 활동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공간이 아닌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공공청사 건립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청사는 지역의 대표성, 역사성, 상징성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사 건립 과정은 주민과의 열린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장흥군만의 차별화되고 미래지향적인 열린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청사가 건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콜음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화재를 예방해주는 '트래킹 클리너'

김형섭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찬바람이 불고 추운 겨울철인 요즘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겨울철엔 매우 춥기 때문에 난방용품 사용이 늘어나고 실내에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지며 그로 인해 전기 화재 발생 위험은 증가한다.

또한 겨울철엔 건조하여 정전기 발생 등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한다.

겨울철에 난방용품이나 각종 전기제품을 사용할 때 콘센트나 모터, 회로 기관에 먼지가 쌓여 전기 흐름에 의한 스파크로 인하여 불이 발생한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계절 내내 사용하는 가전제품과 겨울철 난방용품을 사용할 때에는 꼭 콘센트 주위의 먼지와 각종 이물질들을 깨끗이 제거 후 사용해야 안전하다.



전남소방은 이러한 전기적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트래킹 클리너 무료 대여"를 실시하고 있다.

"트래킹 클리너"란 무엇일까? 전동시장 및 노후주택, 축사 등의 콘센트, 분전반 등의 먼지를 제거하는 장비이다. 화재진압용 용기와 에어클리너 건을 결합해 공기압을 활용하여 전기용품에 쌓인 먼지와 이물질들을 제거한다.

가까운 소방서에 연락해 "트래킹 클리너" 장비를 무료 대여를 받아 먼지와 이물질이 많이 쌓인 곳에 공기압을 이용해 제거한다면 화재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실마 하는 생각으로 화재 위험 요인을 방지해 둔다면 갑작스러운 화재로 돌변하여 나와 가족, 이웃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항상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화재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

기고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만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를 위해 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